

순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군, 쉼랜드에 26억여원 투입 공유오피스 1동·방갈로 4동 신축... 11월 완공 목표

순창군이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인 '워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거점센터를 조성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치유와 휴식의 1번지인 쉼랜드에 사업비 26억여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를 통해 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25.5억원(도 기금 12억, 군 기금 13.5억)을 확보했으며, 자체설계비 9,4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26억 4,4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들어설 쉼랜드는 연중 치유와 휴식, 힐링과 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찾는 휴양과 치유의 명소다.

이에 군은 이곳 쉼랜드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관광할 수 있도록 통창형 공유오피스 공간과 팀 단위로 숙박할 수 있는 방갈로(66㎡, 복층형) 4동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최근 워케이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순창군만의 차별화를 위해 쉼랜드의 숲속명상관, 황토찜질방, 편백숲 산책로 등 기존의 힐링 인프라를 활용해 차별화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순창만의 특별한 워케이션 경험을 제공할

고,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과 힐링이 되는 순창형 워케이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워케이션 근무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세밀하고 차별화된 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순창이 일도 하고 휴가도 보낼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계인구, 체류인구가 늘어 순창의 지역경제도 선순환되고 관광지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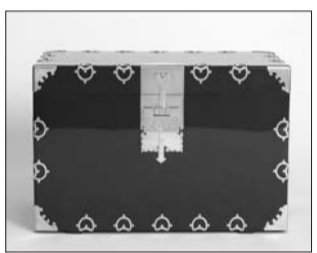
남원시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37점 최종 선정

정기환 작가 '봉채합' 대상 수상

남원시는 지난 24일, 전통 옷칠 목공예의 가능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뛰어난 옷칠 목공예 작가를 발굴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제27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출품작 중 수상작 37점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는 옷칠, 목공예, 나전칠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심사위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일반인 참관단 2명이 참여한 심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은 정기환(서울) 작가의 '봉채합'을 작품은 고려시대부터 전래되어 온 목심저파칠기 기법으로 흑칠의 장점과 재질을 극대화하였



으며, 백동장식의 특유한 부드러움과 우아함이 돋보임과 동시에 실용적 견고성으로 조형미를 조화롭게 표현하여 매우 격조 높게 제작된 수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소병진 심사위원장(국가무형유산 소목장)은 "다양하고 매우 우수한 작품

들이 많이 출품되어 우열을 가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여느 해보다 출품작 수가 증가하여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상여부를 떠나 모든 출품 작가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본 대전을 통하여 우리나라 옷칠 목공예 기법의 전승과 예술혼이 한층 더 발전되고 활용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3일 남원 안숙선 명창의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제94회 춘향제 기간 중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안숙선명창의여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전주 공예품전시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인사동 토포갤러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단체장·부단체장 적극 나서

순창군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동안,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영식 순창 부군수를 주축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김영식 부군수는 소방, 건축, 전기, 토목분야 민간전문가를 편성해 관내 노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으로 건물의 노후도,



소방시설, 전기안전성 등을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해 안전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높였다.

이와 병행하여 군은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 안전점검표 6,000부를 제작 배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아파트, 터미널 등 LED 모니터 54개소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에 동영상 홍보영상 송출 및 SNS 채널 업로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김영식 순창부군수는 "2024년 집중 안전 점검 및 안전 점검 홍보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각자의 집을 스스로 점검하는 등의 활동으로 안전이 일상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과 경찰인재개발원이 오수 팻 추모공원 내 경찰건 안장 업무를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기 위해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건 안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경찰인재개발원, 경찰건 활용 위한 공동연구 추진

임실군(군수 심민)과 경찰인재개발원(원장 박성주)이 오수 팻 추모공원 내 경찰건 안장 업무를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기 위해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임실군수,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폐사 경찰건의 인도 및 신원 증명, 경찰건 안장 구역 확보 및 유지·관리, 장례 및 안장 비용 부담 등 오수 팻 추모공원에 경찰건을 안장하기 위한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토대로 오수건의 경찰건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오수 팻 추모공원은 2018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60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354㎡, 연면적 876㎡의 규모로 화장시설, 추모시설, 수목 장지 등을 조성했다.

오수 팻 추모공원은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 1554-9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반려동물 화장로 3기 등 화장장과 추모시설, 수목 장지 등의 시설을 고루 갖췄다. 또 반려인들을 위한 추모실, 참관실, 봉안당과 실의 공간으로 산책로와 옥외 벤치, 파고라 등도 갖췄다.

특히 반려동물을 잃고 실의에 빠져 고통을 겪는 반려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심민 군수는 "국내 유일 공공동물장묘시설인 오수 팻 추모공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경찰건의 명예로운 마지막 동행길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경찰인재개발원과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협력에 힘써 경찰건의 장례와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설명회

남원시는 지난 24일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주관의 남원교도소 신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교도소는 수용정원 500명 규모로, 총사업비 729억원을 투입해 남원시 화장동 산30번지 일원 15만660㎡의 부지에 연면적 2만1,185㎡로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한국부동산원 및 설계용역사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에서 참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은 상주직원 등의 인구 유입으로 주변 상권, 교통 및 숙박업 등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이며,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해 법무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임실군이 26일 군청 광장에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중증 수혈 환자 증가와 헌혈자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된 현 상황에서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사랑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4회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 체크와 헌혈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과 상시학습 4시간 인정 및 소정의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우수정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임명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에 우수정 씨를 임명했다. 임기는 4월 23일부터 2년간이다.



우수정 신임 감독은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성악) 학사 및 동대학원 교육학석사(국악교육정책)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립창극단 단원 및 예술감독으로 34년간 근무했다. 우수정 신임 예술감독은 춘향가, 흥

부가 등의 배경이자 판소리의 발상지이며 창극의 산실인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브랜드 대표 창극의 작품을 개발하고 시나위, 산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음악을 활성화하는 등 국립민속국악원을 명실공히 최고의 민속악과 창극 전문 기관으로 특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우수정 신임 예술감독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연 운영능력과 예술성을 토대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